

#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격 탐구

-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선우은실

서울예술대학 강사

목차

- 1 들어가며
- 2 재-증언으로서의 여성 서사와, 담론화의 방법론으로서  
구술사/생활사 기술(記述)의 관점
- 3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의 여성 서사에 대한 증언  
-구술사/생활사적 해석의 적용
  - 3.1 전쟁기 모녀 인물 중심 여성 서사의 마스터 플롯  
: 박완서의 『나목』 재해석
  - 3.2 구술사적 서술 방식과 재-증언으로서 소설의 형식  
: 황정은의 『연년세세』
- 4 나가며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6875).

이 연구는 한국 전쟁 시기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서사 간 계보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마스터 플롯의 요소를 살펴보고, 박완서의 서사를 기틀 삼는 마스터 플롯의 연장이자 확장으로 황정은의 『연년세세』의 관계성을 탐구한다. 이때 각 서사가 (재) 증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 서사를 이어 쓰는 담론화의 작업의 재-증언적 성질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근현대 여성 서사의 연속성을 살핌으로써 여성 서사 형식의 구술적 성격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서사의 계보화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구술사/생활사적 관점으로 텍스트를 읽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여성 서사를 계보화하는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는 점에 이 연구의 특징이 있다.

국문핵심어: 여성 서사, 생활사, 구술사, 여성 서사 계보, 한국 전쟁, 박완서, 황정은

### 1 들어가며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에 발표된 현대 여성 서사 가운데 ‘모녀 관계’를 주제로 삼는 양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시기에 비해 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사에서 2010~2020년대의 청년을 서술자 삼아 한국 전쟁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불러온다는 점은 특수하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여성 서사의 계보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게 만드는 현상이다. 여성 서사의 계보화 작업이 기왕의 남성중심적 문학사 쓰기의 위계적 기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간 유효한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왕의 방식이 원본을 ‘시작점’으로 삼는 일직선적인 영향 관계의 계보를 쓰는 것이었다면 ‘마스터 플롯’을 중심으로 계보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연결성을 고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이

다. 마스터 플롯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우리의 근저에 위치한 가치, 희망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리들<sup>1)</sup>”의 집합을 의미하며, 패턴화된 플롯, 전형적 인물의 반복 등을 포괄적으로 함의한다. 이때 마스터 플롯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sup>2)</sup>을 반영하고 드러낸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 서사의 증언적 성격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구술되는 것으로서 서사를 계보화하는 것은 ‘원형(元型)’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문제의식 속에서 변주되는 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여성 서사와 접점을 마련하는 여성 문학사 차원에서, 마스터 플롯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계보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성 서사의 역사를 훑어 박완서의 저작 중 다수에서 한국 전쟁 시기 모녀 인물을 주축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모녀 관계 중심의 서사로 꼽아볼 수 있는 대표작 『나목』(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sup>3)</sup>은 일정한 서사 구조를 공유한다. 이 소설들은 한국 전쟁기 작가의 실제 체험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시기와의 직접적 연관성<sup>4)</sup>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H. 포터 에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99쪽.

2 위의 책, 100쪽.

3 세 작품은 1. 80년대에 추체험되는 것으로서 비로소 언어화되는 전쟁 서사라는 점 2. 남성 중심적인 발화(남성 주체에 의해 목격되고 상실되는 민족-주체-남성의 연관성)에 의해 전개되는 서사가 아니라 세대 차가 나는 여성 인물이 해당 시기에 자기의 젠더(민족) 계급성을 경험하는 것을 다룬다는 점 3. 그 과정에서 남성 인물의 부재(오빠의 죽음, 아버지의 부재 등)가 세대 차가 나는 여성 인물이 서로에게 투영하는 배덕한 욕망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세 편에 기준하여 모녀 관계 중심의 전쟁 서사로서 박완서 소설을 마스터 플롯으로 삼을 것이며, 개중 본고에서는 가장 초기작인 『나목』을 중심으로 마스터 플롯의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4 박완서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오빠 또한 잃었다는 사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에서 남성 가족의 상실로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도 유비적인 방식으로 발견된다. 이를테면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시기 전후를 배경으로 삼는 『저문 날의 삽화』 연작에서 불길한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자녀의 죽음을 짐작하는 어머니 인물이 등장한다.

다음의 요소를 공통점으로 삼는다. ▲소설 내 시간적 배경으로 한국 전쟁을 다룬다는 점 ▲한국 전쟁기를 반추하는 서사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전쟁 당시 비혼의 청년인 ‘딸’의 전쟁 체험이 서사의 주된 요소로 자리한다는 점 ▲딸이 어머니를 통해 청년 여성 및 그 전 세대 여성의 삶의 연속성을 성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5</sup> 요컨대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는 ‘전쟁’과 ‘모녀’를 모두 키워드 삼은 여성 서사의 계보적 거점으로서 마스터 플롯으로 삼아질 만한 근거가 있다. 나아가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중심 서사는 작가의 직접 체험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증언적이다. 이때 ‘증언’은 사실의 반영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사실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작가의 한국 전쟁기의 체험과 가족 상실의 사건 등이 소설에서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찰됨으로써 이 서사는 ‘한국 전쟁기’에 대한 여성적 관점의 역사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되는 여성 서사<sup>6</sup>는 이러한 박완서의 증언적 성격의 마스터 플롯

- 
- 5 전쟁기의 모녀가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맺음하는 관계라 본다면 확장적으로는 가부장제에 근간한 여성 가족간 관계로 인물군이 넓어지는 인물 관계도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음을 언급해준다. 이를테면 『나목』에서 오빠의 부인인 ‘언니’와의 관계를 그렇게 볼 수 있다.
- 6 관련하여 조우리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 서이제 「그룹사운드 전집에서 삭제된 곡」(웹진 비유, 2020년 3월호), 권여선 「실버들 천만사」(『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 천희란 「카밀라 수녀원의 유산」(『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은행나무, 2020), 백수린 『친애하고, 친애하는』(현대문학, 2019), 김이설 외 『엄마에 대하여』(다산, 2021), 한지혜 『물 그림 엄마』(민음사, 2022), 이서수 『몸과 여자들』(현대문학, 2022) 등을 참고. 위의 작품들은 딸 인물을 주축으로 두고 ‘어머니’라는 지위가 가부장제 하 여성의 주체성을 탈각시키는 지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라는 정체성과 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 개인’을 분리하고 인정하고자 하며 ‘모녀’ 간 애정을 갈구하는 동시에 서로의 욕망과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각 작품은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초점화 하는 세부 테마는 조금씩 다르다. 보편적 의미의 어머니-여성에 대한 것(권여선, 서이제), 딸된 이의 분열적 자기 이해와 모녀 관계(백수린), 쿼어 서사 한 가운데의 모녀 관계의 성찰(조우리), 몸에 대한 일치하는 폭력적 경험으로의 연대 가능성 및 완벽한 이해 할임의 불가능성(이서수) 등이 그렇다. 부연하건대 이렇게 세목화된 방식으로 모녀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었던 토대에는 『82년생 김지영』의 화제성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여성인 화자가 분열된 자기 인식에 대해서 고백 하되 어머니가 되기 이전 청년 여성으로 겪었던 폭력의 내용을 각주화된 기사로 뒷받침하는 이 소설은, ‘지금 여기’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음을 각

에 빛진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역사화/계보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모녀 인물을 중심으로 여성성을 탐문하고 앞선 세대 여성의 삶을 청년 세대 여성과 유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그렇다. 이 중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와 직접적 연관성을 띠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황정은의 『연년세세』(창비, 2020)다. 이 소설은 ▲전쟁기 체험과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 모녀 인물 사이의 관계를 주축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 ▲현대와 거의 동일시되는 시점의 소설적 현재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선대(先代) 여성의 삶을 되짚어 나간다는 점 ▲그렇게 추체험되는 선대 여성의 삶의 한 가운데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와 접점을 지닌다.

이러한 황정은 소설의 특징은 박완서의 마스터 플롯과 연결성을 지니되 서술의 톤(tone)이나 소설적 형식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증언의 방식에서 분별된다. 『연년세세』는 장녀 한영진, 차녀 한세진, 어머니 이순일의 시선을 교차하며 연작으로 서술함으로써 3인칭과 1인칭을 혼합하며, 실제 현실 속 당사자의 발언<sup>7</sup>을 인물의 그것으로 뒤섞는 방식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즉 여러 인물의 관점을 둘러 고백적 발화 양식을 활용해 각 세대 여성의 삶을 반추하는데, 그 삶을 과

---

성시켰다. 또한 비슷한 폭력의 경험 속에서도 서로 분별되는 이야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는지를 묻게 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모녀 서사에 대한 관계적 성찰을 더욱 두드러지게끔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 7 작가는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 민주화 시기를 살아낸 노인 여성 인터뷰이의 발언을 고쳐 쓰기 하지 않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순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무명」이라는 단편을 쓸 때, 그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야기를 들어두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 본인들이 한국 전쟁 동안에, 그리고 한국 전쟁 직후, 60년대와, 70년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시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나보다 더한 일을 겪은 사람도 많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너무나 흔해서 어디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평소에는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었는데도 본인들이 당신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잘 모르지 못 하셨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지만 그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로지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게 처음이구나, 라는 걸 본인들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박수진, <『연년세세』 황정은 “소설은 정말 이상한 생물”>, 북뉴스, 2020. 12. 23. ([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15330](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15330)))

거에 밀어두지 않고 현재로 환기시킨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가령 전쟁기에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한 이순일 친척의 과거사가 2010년대 후반~2020년대로 소급되면서 한때는 민족을 배반한 ‘양공주’라 불렸던 여성이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어떤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갔는지가 그 후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구술사적인 방식을 서사 양식으로 차용함으로써 서사 속 인물과 실제 삶으로서 존재하는 여성을 일치시키고 각각의 여성을 통해 환기되는 공통 기억으로서 실재하는 역사성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여성이 직접 발화하고 구술하는 형태를 소설적으로 차용함으로써 한 시대의 생을 ‘완결된 것’이 아니라 후대 여성의 삶으로서 이어 진술되는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박완서와 황정은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 서사의 증언적 성격에 대해 강조할 것이며, 이를 살피는 방법론으로서 구술/생활사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재-증언으로서의 여성 서사와, 담론화의 방법론으로서 구술사/생활사 기술(記述)의 관점

황정은의 소설은 박완서를 필두로 한 전쟁기 모녀 서사를 원형으로 삼되, 미래적 시점(2010년대 후반~2020년)에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기(1950년대 이후)를 다시 불러온다. 이때 각 작품이 표방하는 서사 문학의 형식은 구술사/생활사적인 기술의 원리와 가까워 보인다. 구술사/생활사는 실제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미시사적 차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쓰기의 영역이다. 이때 ‘실제’의 발언을 글의 재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실’ 자체를 곧장 역사화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증언자의 발화가 해당 시기의 사실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그것을 전달하는(기록하는) 이의 해석적 관점이 더해져 나온 결괏값으로서 증언적 서술은 ‘해석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학이 현실을 ‘재현’하는 원리와 흡사하다. 문학적 재현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제출된 발화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해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실에 대한 해석을 근간으로 사실에 대한 규명을 넘어 겹겹의 해석을 통해 진실을 일련의

‘과정’으로서 탐구하는 것이 ‘구술사/생활사’적 원리라 할 때, 박완서에서 황정은으로 이어지는 여성 서사의 증언적 형식을 규명하는 데 구술사적 원리 및 사회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생활사적 관점의 접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의 서사에서 시작해 2020년대로 이어지는 전쟁기 모녀 관계를 주축으로 삼는 여성 서사의 상호 참조적 양태와 관련해 ‘역사 쓰기’의 개념을 다시금 검토해 본다. 역사가 ‘사실’에 입각한 ‘해석’인 이상, 역사적 사건을 여성 경험의 사건으로 재-사건화하는 전쟁기 여성 서사는 남성 젠더화 된 역사 기록에 여성 젠더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 당사자 인물의 증언적 형식을 토대로 하는 박완서, 황정은의 서사가 청년 세대 여성 인물의 진술을 통해 전 세대 여성의 삶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끌어낸다는 점은, 특히나 해석으로서 역사적 진술을 문학적 재현으로 수행하는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린 헛트의 역사 기술론의 일부를 참고해 본다. 린 헛트는 역사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사적 진실”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에는 사실fact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때 “사실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해석이 가미되기 전까지는 무력”하며 “해석이 지니는 힘은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sup>8</sup>에 달려있다. 즉 특정한 사건을 주요한 담론으로 만들려는 해석적 관점에 의해 어떤 사실은 ‘중요한 사실’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역사적 기록이란 단순히 주목할 만한 큰 규모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해석이 관철된 결과물이다. 린 헛트 식대로 말하자면 “사실이란 근본적으로 사실 확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sup>9</sup>되는데,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려는 자 또는 그것을 전복하려는 자의 의도와 맥락의 개입이 곧 역사적 진실의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역사는 기초적 사실에 해석자의 목적이나 정치성이 반영된 해석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구체적 사실로 자리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화의 방식으로 조직됨으로써 ‘역사(적 진실)’로 거듭난다는 점이다.

---

8 린 헛트, 박홍경 역, 『무엇이 역사인가』, 프롬북스, 2019, 53쪽.

9 위의 책, 62쪽.

린 헌트는 “사실에 관련된 일련의 해석에 의지하는 문학적 재구성”<sup>10</sup>이 필요한 일로서 역사화의 작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 기술론의 관점은 사실적 삶을 기초로 하되 그것을 허구적 세계 안에 재구성하는 ‘재현의 형식으로서 서사문학’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 점에 착안한다면 박완서, 황정은 작품의 전쟁기 모녀 중심 여성 서사의 연속적 양태를 서사 문학의 형식을 차용해 여성의 역사적 체험을 거듭 ‘이어 진술하는 증언 서사’의 일례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완서의 전쟁 서사와 관련한 논의 중,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화소인 남성 가족(오빠 혹은 아버지)의 죽음과 전쟁기에 대하여 작가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언급하는 최근의 연구<sup>11</sup>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은 작가의 체험을 곧장 작품 성취의 근거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최근 연구의 논점은 박완서가 겪은 사건이 서사의 역사성을 근거하는 ‘최소한의 사실fact’로 자리하되 여러 형태로 반복적으로 변주된 채 재현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확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작가의 경험에 기반한 사실 요소는 각각 오빠의 죽음, 작가 자신의 PX에서의 근무 경험<sup>12</sup> 등의 화소(話素)로 나누어 언급되며, 그러한 시간의 한 가운데 해석자(작가 혹은 인물)가 있음으로 인해 특정 역사적 사

10 위의 책, 63쪽.

11 사회주의자로서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오빠에 대한 박완서의 진술(에세이)을 토대로 그의 작품 속 오빠의 죽음을 한국 전쟁기 대문자 ‘오빠’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야기화한 작업으로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우리문학연구』 제0권 제32호, 2011), 전쟁을 서사화 하는 작업을 젠더적 시선 차에 근간을 두고 비교하며 박완서의 전쟁 서사가 기억에 의존하되 여성 노인의 시선을 차용하여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차별화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민영, 「노인 여성의 기억과 생존의 전쟁 서사」(『현대문학연구』 제0권 제61호, 2020), 작가 및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의 특수성에 대한 경험이 보편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서사적 미학성을 토대로 박완서의 전쟁기 자전적 경험을 해석한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인문학술』 제1권 제1호,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2018), 박완서의 전쟁 체험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미묘한 변주’로 보고 한국 전쟁의 의미를 다각화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여성문학연구』 제45권, 2018)를 예로 들 수 있다.

12 이는 단순히 작가의 PX 근무 체험기가 아니다. 당시 미군 문화에 인접한 경제 활동을 수행했던 여성을 ‘양갈보’ 등으로 묶어 부른 정황과 더불어 미군으로 표상되는 미국을 대타자 삼은 남한 남성의 민족 이데올로기의 자장 속에서 여성의 타자화 경험 전반을 의미한다.



건이 (해당 사건 이후의) 미래에 여전히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논점들은 박완서의 소설이 역사적 사실 사건을 서사 문학으로 재현한 ‘증언의 양식’<sup>13</sup>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소결로 포괄되며, 이러한 증언적 성격을 거듭 강조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제출하고 누적함으로써 그것을 재-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양선은 박완서의 서사를 하나의 젠더화된 증언으로 보고, 작가의 혹은 인물에 의해 매개되는 여성의 전쟁 체험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게 종결된 서사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외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짜맞춰 보고 고통스럽게 떠올리는 행위”<sup>14</sup>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양선이 논증한 바와 같이 박완서 서사에서 전쟁 체험의 언급이란 증언적인 것, 즉 체험자의 자기 발화로 제출된다. 이때 당사자는 자신이 마주한 현재를 해석하는 과정으로서 과거를 끊임 없이 소급하고 재해석하는 존재다. 다시 말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증명하는 이가 아니라 특정인(의 체험)과의 연관성 속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이’의 성격이 보다 강조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증언자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형식 자체일 텐데, 어떤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는 자 즉 ‘당사자-되기’의 수행성을 실천하는 일에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즉 증언은 일련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와 대결하는 ‘해석’의 소산이며, 증언에 참여하는 이는 ‘당사자-되기’를 시도하려는 이들로 확장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쟁기 모녀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적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박완서의 일련의 작품을 증언 서사로 보는 것과, 소재/

---

13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언급할 만한 논의는 김양선의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5권, 2002)다. 김양선은 이 글에서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쟁 체험이 그저 서사 내 전쟁 경험의 반복적 서술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전쟁에 대한 ‘증언’의 양식”(145)이자 “성별화된(gendered) 기록”(146)으로 본다. 김양선의 말과 같이 이때 ‘증언’은 잘 다듬어진 형태의 발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회고’와는 차별화되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이 박완서 서사의 매번의 발화 과정 안에서 불일치하고 불화하는 자기 탐색을 수행하는 인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의 논의를 특히 강조하려고 한다.

14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5권, 2002, 150쪽.

주제 및 형식적 인접성을 띠고 마스터 플롯 서사를 재서술하는 황정은의 작품을 (역사 쓰기의 일종으로서) ‘구술사 쓰기’ 차원에서 엮어 해석하는 일은 여성 서사를 계보학적으로 읽는 ‘-되기’의 방법론으로 제안될 수 있다.

증언의 형식과 관련해 구술사를 서사 해석의 방법론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해석’과 ‘겹의 해석’ 및 그것의 끊임없는 재진술로서 서사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다는 의미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술사의 집필 원리와 관련해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의 일부를 참조한다. 이 책은 체험자의 직접 서술을 채록하는 것을 방법론 삼아 역사의 진실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구술사의 방법론 및 실제 적용에 대해 다룬다. 이 책에 따르면 구술 증언자의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존재하는 동시에 그러한 증언에 부여된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적 맥락이 부과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된다. 발화자가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증언은 하나의 역사적 근거로 보증되는 듯 보이지만, 그 ‘증언’이란 발화자가 해당 경험을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해석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즉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사실적 진실보다는 서사적 진실을 강조”<sup>15</sup>하므로, 실제 사실과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해석된 진실’의 영역까지를 구술이 증언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더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목표 아래 발화자와 분리된 존재로서 ‘구술 기록자’의 해석적 시각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바로 이 점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서사 문학의 형식 자체가 증언적일 수 있거니와 여기에 ‘여성의 삶’이 더해질 때, 그것을 직접 서술하고 해석하는 ‘여성의 증언’으로서 여성 서사는 비로소 역사적 사건으로서 진술될 수 있다.

나아가 메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담론화의 방식이 사회학적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생활사 쓰기’와 관련됨을 부연하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의 생활사론에 따르면 구술사와 사회학적 생활사 탐구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특정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구술사인 한편 “역사와 구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는 것에 역

---

15 이호연 외,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 2021, 31쪽.

점”<sup>16</sup>을 두는 것이 생활사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별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사적 관점의 역사 서술의 접근 방식이 ‘지금의 생활’에 보다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시 마사히코의 생활사 정의를 다시금 살펴보면 ‘사실 사건’에 대한 문학적 서사화의 방식과 그에 대한 담론화의 방식이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맥락 속으로 자신을 소급하는 일과 인접해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건’을 다루는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사 문법 안에 재편되고 상상된 채 재구성된 현실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짚어 담론화하는 방식은 서사적 재구성(재현)의 증언적 성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면서, 곧 그에 대한 재-증언 자체이기도 하다. 작품의 연관 고리를 찾아냄으로써 과거 사건의 재현을 ‘지금 여기의 일’로 다시금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즉 여성 서사의 증언적 성격을 보고 그에 대해 말하는 연구는 “대화를 반복하면서 어떤 규범적 관계성 안으로 편성되어 들어가는 것”<sup>17</sup>이다.

다만 사회학적 방법으로서 생활사 연구의 관점을 문학 분야의 해석에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 생활사 연구에서 어떤 증언자는 연구자가 문제로 지적하는 사회 현상을 부정하거나 그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때 증언의 서술자인 연구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점이 이 방법론의 난제 중 하나인데, 이를 문학 분석의 특수성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생활사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진실과 반대의 증언일지라도 증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해석’을 거침으로써 이 증언의 인용부<sup>18</sup>를 벗겨내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및 해결의 방식은 증언 그 자체를 하나의 근거 및 역사의 현상으로 바

16 기시 마사히코, 정세경 역, 『망고와 수류탄』, 두번째테제, 2021, 39쪽.

17 위의 책, 23쪽.

18 기시 마사히코의 위의 책에 따르면 내 옮긴이의 각주에 따르면 인용부는 “구술자의 구술 및 이야기에 씌워져있는 부호”(43)를 말한다. 확장적으로 말하자면 구술사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현재적 해석으로서 덮어씌워진 증언자의 맥락이 ‘인용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의 과정에서 이것을 멋대로 제거하는 경우 해석의 타당성을 위해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되고 이는 해석에 ‘바쳐지는’ ‘정돈되고 통합된 진술’로 일축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 방식이 될 수 있다.

라보고자 하는 생활사의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주요 문제일 터이고, 이를 문학 역사화의 문제와 곧장 등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사실(A)에 대한 해석으로서 증언적 성격의 서사(A')가 존재한다고 볼 때, 해석과 재구성을 적극적인 방법론이자 미학적 형식으로 채택하는 문학의 영역은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인용부를 ‘덧씌운’ 사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인용부를 덧씌움으로써 특정 시기의 특정 개인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학을 (재)증언적 성격의 미학을 가진 것으로서 해석하는 일종의 담론화 작업은 그 인용부를 다시 현실의 것으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씌우는 일이 된다. 즉 이 작업은 여성 서사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A'')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술사/생활사적 방법론으로 서사 문학에 접근하되 그것이 단절된 시기에 대한 단절된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학 서사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역사 쓰기의 과정으로 환원되는 것이 가능함을, 이 연구에서는 박완서, 황정은의 사례를 비추어 살핀다.

### 3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의 여성 서사에 대한 증언

#### -구술사/생활사적 해석의 적용

#### 3.1 전쟁기 모녀 인물 중심 여성 서사의 마스터 플롯

##### : 박완서의 『나목』 재해석

전쟁기 모녀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박완서의 소설은 전쟁기의 영향을 받은 여성 인물의 관계 양태를 훑아봄으로써 역사적 사건 이후에도 그 영향 속에서 삶이 지속됨을 성찰하는 기틀로 자리한다. 이때 ‘한국 전쟁’이라는 사실 사건은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 차원의 자전적 체험의 요소는 박완서의 여러 작품에서 패턴화되어 발견된다. 그중 한국 전쟁 시기 미군 부대 PX에서 점원으로 일했다는 작가의 일화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숙부와 오빠가 사망하는 등 가까운 남성 가족을 잃은 경험은 『나목』(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에서 특히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중 『나목』에서 모녀 관계를 성찰하는 데 주요 사건으로 작동하는 ‘오빠의

죽음'은 남성 가족의 상실이라는 화소로 자리한다. 이 화소는 다른 작품에서 전쟁에 참전한 남성 친척이 외상을 입거나 어딘가 인간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으로 변주되어 드러난 바 있다. 『그 남자네 집』에서 외상을 입고 전역한 먼 친척 남자가 그 예로, 그는 '나'와 모종의 연애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전쟁 당시 당장 미래를 상상하거나 설계할 수 없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개인 없는 공허한 집단(민족, 가족)으로 환원되는 개개인의 삶을 환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성 가부장(오빠)의 존재/부재'는 모녀 인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소다. 이를 상기한다면 소설에서 친척 남자와의 연애 관계는 이렇듯 (불가능한) 미래적 삶의 양식을 여성 인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사건에 대한 변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는 『나목』, 『그 산은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증오(또는 혐오)와 애정을 동시에 갈구하는 딸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어머니와 같은 선택으로서의 가부장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 미래 없는 삶에서 환상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홈 스위트 홈을 냉소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공통적 정체성으로서) '여성의 삶'이 아닌 '여성인 나의 삶'의 지속을 꿈꾸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박완서에 서사에는 한국 전쟁을 겪은 역사 경험의 당사자성에 근거해 한국 전쟁과 가족의 죽음이 반복 배치돼 있으며, 이로써 구체적인 여성-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를 주지한 위에서, 본고에서는 여성의 체험으로서 전쟁과 그에 대한 거듭된 자기 서사의 일종으로 박완서의 『나목』을 중점적으로 재독해보고자 한다. ▲가부장제의 기울어 강조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헐어지는 특수한 사건인 한국 전쟁 시기에 ▲청년 여성이 ▲남성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자기 내 외부의 관계 속에서 얼마간의 연대와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불일치하고 분열되는 자기 정체화 과정을 겪어나가는 과정으로 정리되는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중심의 서사의 주요 요소가 『나목』에서 최초로 플롯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세 작품 중 가장 먼저 집필된 『나목』을 시기상 마스터 플롯의 원형으로 채택하고, 그 세목으로서 전쟁기 모녀 인물의 특수성을 다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성의 삶을 '이어쓰기'하는 것의 원형으로 『나목』을 다시 읽을 때, 분절되지 않고 거듭해서 이어 쓰기되는 것으로서 여성 서사의 현재적 역사성 또한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전쟁 경험을 다뤘은 『나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면을 조명해왔다. 하나는 ▲아들 사망 후 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통해 모성성(또는 여성성)의 허구성에 대해 폭로했다는 것이고<sup>19</sup>, 다른 하나는 ▲남성 가부장 이 부재한 전쟁 시기 그것을 대리하는 여성의 노동이 오롯이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복합적 맥락을 지녔다<sup>20</sup>는 것이다. 이 두 주제는 딸의 성장 서사 또는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로서 의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우선 전자의 논점은 박완서의 전쟁 서사가 여성 억압을 드러낸다고 해석되는 연구와 같은 궤에 놓인다. 이는 박완서의 서사 속 모녀라는 관계가 전쟁이라는 폭력과 위협이 일상화된 위태로운 시기에 여성의 삶과 가부장성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요한 렌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요약된다. 김진경은 『나

---

19 한경희는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박완서의 장편 소설 『나목』(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제 67권, 2017)에서 박완서 소설 속 한국전쟁기 오빠의 죽음을 통해 “작가가 당시의 자신을 투영하여 만든 작중 인물인 딸들이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여성’이라는 자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여성성의 계보학적 이해를 위하여 박완서의 소설들을 통해 한국전쟁이 어떠한 여성성을 주조해냈는가”를 묻는다. 이때 가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생계 노동의 한 축과 관련한 세속성을 “‘전쟁 모성’”이라 명명하며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 자체가 여성적 욕망”으로 여겨진다고 본다.

한편 박정애는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박경리의 「시장과 전장」과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 13권, 2005)에서 부계 문학과 비교를 통해 모자 관계와 달리 “평화로운 증산층 가정의 모녀 관계가 내포한 허위성은, 아들들이 죽고 모녀만 남았을 때에야 날것으로 드러난다”고 판단한다. 이때의 허위성이란 “사랑으로 결합된 모녀관계”로, 『나목』의 전쟁 시기 오빠의 죽음은 오히려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된 여성성이 허구적인 것임을 폭로한다고 본다.

20 전쟁처럼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가부장의 부재 혹은 상실로 인해 외부적으로 생계에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태를 “모계가족”(『한국전후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 25권, 2005, 71쪽)이라 언급하는 강용운은 이러한 부양의 양상이 “근현대사적 격변기와 맞물린 아버지 부재 시대에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대신하는 억척모성”(72)으로 확장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산업화시기 가부장을 대리하거나 능가하는 여성의 노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조명되는 여성 생계부양자는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거나, 여성의 노동력을 남성의 보조자로 치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부”(74)로 드러난다.

목』에서의 오빠의 죽음 이후 이경이 어머니로부터 상처받는 장면에 대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미는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며 “딸조차도 아들이 있을 때에야 ‘고명딸’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sup>21</sup>이라 말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음에 주목한다. 여기서 “딸들은 자신을 억누르는 어머니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반항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나가려 노력하며”<sup>22</sup> 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탈신화화를 시도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덧붙이건대 아들은 생물학적 자녀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팔루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환원되는 바, 이러한 자장 가운데 딸의 자기 지위에 대한 짐작은 가부장제로 결속되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자기부정성을 띠는 것일 수밖에 없다. 존재 가치의 차등을 학습한 여성이 성장하여 어머니가 되는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어머니—여성—자신의 딸—여성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식으로서의 딸을 부정해야 하는 젠더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목』에서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조명하는 가부장(차기 가부장으로서의 남자 형제를 포함)의 부재를 인식하는 전쟁이라는 사건에서 젠더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전쟁 중 오빠의 사망으로 인해 전경화되는 여성의 삶이 딸인 이경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경유해 드러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나목』은 딸에 의해 다시 쓰인 어머니의 서사이면서 어머니로부터 배반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딸의 재해석된 서사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녀 관계는 전쟁의 참혹을 드러내는 시각을 제공해주는 관계망이자, 딸이 어머니의 삶을 적극적으로 자신 가까이로 끌어들이거나 밀어내는(이를테면 딸이 ‘어머니 되기’의 일환으로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중층적 해석을 발생시키는) ‘서사 쓰기’에 참여토록 만드는 주요한 요소다.

여성의 주체성과 노동의 관계성을 성찰하는 후자의 논의 또한 ‘모녀’를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다. 『나목』에서 PX는 미국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남

21 김진경, 「가족과 여성성, 그리고 모성: 박완서의 『나목』과 에이미 탠의 『조이러클럽』 비교 연구」, 『비교한국학』 제18권, 2010, 384쪽.

22 위의 글, 382쪽.

성의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기이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다. PX의 일꾼들은 주로 돈벌이를 위해 이곳에 출입할 뿐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젠더에 따라 비균질적으로 수행된다. 가령 초상화부의 화가들 및 태수에게 PX는 가부장 남성의 경제력을 경합하는 장(場)이다. 특히 자본과 불화하는 예술적 개인(옥희도)이 여타의 남성과 대립항으로 설정됨으로써 PX 내 남성적 젠더 정치를 구현한다. 그러나 남성 가부장을 대리하는 이경의 PX 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녀의 PX 내 노동은 민족을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로서 ‘양갈보’와 다름없이 취급된다. 그녀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가족들마저 그런 그녀의 경제 활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이러한 과정에 이경-모친의 갈등 및 이경의 연애와 결혼이 뒤얽힌다.<sup>23</sup> 이는 청년 여성이 자기의 삶을 쓰는 데 있어 전 세대 여성인 어머니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여성의 삶을 가로지르는 전쟁기-여성의 노동에 대한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지형에 젠더 정치가 얽혀 있음을 드러낸다.

어머니를 남성 중심적 민족 이데올로기의 지형 속에서 대타자적 거울로 삼은 차세대 여성(딸)의 결혼 선택은, 그러므로 다르게 읽힌다. 이경의 시선에서 PX 내 한국인의 삶은 세속/숭고, 자본(경제력)-미국/순결-민족 이데올로기의 이분 체계로 가시화된다. 이경이 이상화하는 옥희도는 PX의 환쟁이들과는 다른 숭고한 예술가이고, 자본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PX에서의 한국 남성으로서 민족

---

**23** 이와 관련해 이경의 PX 노동은 일차적으로는 경제력의 확보이면서 어머니 부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언급해준다. 이경의 어머니 부양은 아들의 죽음 후 가부장제의 망령처럼 껍데기로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다. 그녀는 “어머니를 싫어하면서도 어머니가 살아가는 데 내가 어느 만큼의 보람이나 힘이 되고 있나 좁은 문득문득 궁금해하는 터였으므로 짓궂게 어머니에게 따지고”(『나목』, 세계사, 2012, 87쪽) 들곤 한다. 가부장제에 헌신하는 모친에 대한 증오로서 이경의 노동은, 세간에서는 ‘양갈보’의 일로 여겨진다. 전쟁 시기 미군의 PX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性) 노동과 무관한 경우를 포함해 ‘양공주/양갈보’라 통칭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세우기 위해 ‘대타자 미국-타락한 민족성-여성성’을 하나로 엮은 멸칭의 결과물이다. 어머니 일가를 걱정하는 친척 동생 마리의 편지에서 이경이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양”(『나목』, 세계사, 2012, 121쪽) 언급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다. 이경이 ‘PX에서 일하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않는 모친의 태도는 이경으로 하여금 PX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삶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이유로 작동한다.



주의적 열등감을 정체화하는 황태수는 옥희도와 상반된 세속인이다. 이때 이경이 황태수를 택하는 결말은 어머니에 대한 위악적 선택이자 모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차세대 여성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근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전쟁의 불안을 속물화된 미래적 낭만주의로 극복하려는 황태수는, 같은 불안 속에 놓인 어머니가 가부장제 재생산이라는 추상적 미래를 위해 장남을 장가보내 후손을 봐야겠다고 말한 것과 반대의 삶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이경이 결혼을 선택하는 서사의 결말은 종종 성장의 실패로 해석되기도 하나, 제도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미래를 타진하려는 여성의 욕망과 관련한 젠더 정치의 실현 양상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나목』을 여성 인물의 성장 서사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부장적인 어머니에 대한 혐오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약성의 경험, 성과 사랑에서의 자기 욕망의 확인 등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의 가능성”을 보면서도, 딸 이경이 자신에게 구애했던 PX 전기공 황태수와의 결혼을 선택했다는 결말에 대해서는 “딸의 자아찾기는 돌연 중단”<sup>24</sup>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이경의 삶의 이력이 어머니의 삶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모녀의 삶 ‘다시 쓰기’이자 ‘이어 쓰기’의 한 과정임을 고려한다면 황태수의 결혼은 달리 해석될 여지를 지닌다. 어머니가 오빠의 죽음 이후 한 순간도 생기를 가져본 적 없음을 생각할 때 이경이 전쟁 시기 상실의 경험과 어머니로부터 직면하게 된 자기 부정의 이중적 고난 속에서 어머니를 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기 가부장인 남성 형제 없이도 집단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황태수와의 결혼은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 파토스적 충동에 의한 생의 의지가 드러난 결괏값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나목』에서 모녀 관계는 미래를 타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쟁 시기에 서로의 존재 가치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자의 삶을 ‘다시 쓰기’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이경이 PX에서 만나는 다른 여성 인물을 경유하며 그 외연을 확장해간다. PX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서의 새 삶을 한 번 고려해보는 유기부의 미숙,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PX에서 일하면서 미국

24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제0권 제4호, 2000, 256쪽.

에 간 미군 애인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다이아나 김이 그렇다.<sup>25</sup> 미숙은 “전쟁이니 피난이니 굶주림이니 지긋지긋”<sup>26</sup>하다는 이유로 미군과의 결혼을 생각해보지만 이윽고 양갈보라 홍보일 것에 대해 걱정한다. 한편 다이아나 김은 미군을 상대로 호객하면서 미군 애인을 두었다. 그런 까닭에 다이아나 김은 ‘어머니-여성’의 숭고성을 부정당한다. 이러한 인물의 삶은 다름 아닌 이경의 시선에서 포착된다. 그리고 이 서술자 인물의 삶의 문제 한 가운데 ‘모녀 관계’가 놓여 있다. 즉 이경 중심의 모녀 관계가 현실 사건에 중첩됨으로써 전쟁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의 삶의 가시화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모녀 관계’를 주축으로 전쟁기를 다루는 것은 당대의 젠더 정치에 대해 다루는 일인 동시에, 여성 인물간 관계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다시 쓰는-/이어 쓰는-’ 역사 서술이다.

### 3.2 구술사적 서술 방식과 재-증언으로서 소설의 형식 : 황정은의 『연년세세』

황정은의 『연년세세』에는 『나목』의 이경과 동시대 (혹은 이경의 차세대) 인물이 할머니가 된 2010년 후반의 시점을 배경으로 삼는다.<sup>27</sup> 총 네 편으로 구성된 단편은 각각 차녀 한세진(「과포」), 장녀 한영진(「하고 싶은 말」), 이순일(「무명(無名)」), 한세진의 관계로부터 확장되는 윤부경(「다가오는 것들」)으로 초점 화자를 달리하는 연작으로 읽힌다.

이순일이 자신의 삶을 직접 발화하는 「무명(無名)」 이외의 작품 가운데 「하고 싶은 말」에서 현재 중년인 장녀 인물이 전 세대 여성인 어머니의 삶을 성찰하

25 특히 이러한 여성 인물군에 대한 서술은 ‘탈-민족 어머니 되기’의 기획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모녀 관계’의 확장적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군과 관계하여 이주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황정은의 『연년세세』에서 재차 주목되고 있음을 언급해둔다.

26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154쪽.

27 『연년세세』에서 초점화하는 인물 이순일은 1945년생으로 추정된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점에 이순일은 미취학 아동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슷한 시기 『나목』의 이경이 청년 여성으로서 PX에서 일했음을 고려하면 한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배 차가 있는 동시대 여성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방식이 독특하다. 이는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가 ‘모녀’를 중심으로 ‘위기  
의 삶 속에서의 젠더’를 성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화소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고 싶은 말」에서 한영진은 출산 후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다가 차후 “갓난아기와의 간격이 조  
금 벌어진 뒤에야 아이와 관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순일의 노동이 그것을 가  
능하게 했”<sup>28</sup>다는 사실을 주지한다. 즉 한영진의 여성으로서의 삶의 구성 원리는  
이순일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된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한영진의 개인 정체성의 불일치와 와해(와 통합)를 보  
여주는 한영진의 ‘출산’에 대한 자기 해석은, 나아가 이순일의 전쟁 체험이 부여  
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시 읽힌다. 이순일의 일  
대기를 서술하는 「무명」은 한국 전쟁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자기 삶을 되돌이키  
는 당사자의 자기 해석적 서사다. 여기에서 이순일은 전쟁 경험 및 그 여파 속에  
서 지속된 삶이 생존의 긴급함 문제와 내내 엮여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한영진  
이 자신의 출산을 존재론적 위기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과 맞닿아있다. 요컨대,  
딸의 서사에서 어머니의 삶이 소급되는 방식은 어머니의 역사를 통째로 자기 삶  
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사유된다.

이러한 특징의 서사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 시점의 모녀 관계를 중  
심으로 전쟁 경험 이후의 여성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성찰한다는 점에서 박  
완서 식의 마스터 플롯을 이어 쓰기 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소설의 재현 전략 및 형식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순일의 생애를 서술하는 과  
정에서 구술적 발화 방식을 차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순일의 생애의 사건이 차세  
대 여성 인물에 의해 재서술됨으로써 그들의 자녀, 자녀의 애인 등 다른 관계망  
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구술적 발화의 서사 전략을 살피기 위해, 이순일  
의 전기적 사실 몇 가지를 짚고 간다. 이순일은 어렸을 때 피난을 가던 중 어른들  
에게 버려지고 겨우 살아남아 외조부 손에 맡겨졌다. 이순일은 간난애였던 동생  
을 업어 키웠는데 포대기에 불이 붙는 사고로 인해 동생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린

28 황정은, 『연년세세』, 장비, 2020, 75쪽.

다.<sup>29</sup> 이후 이순일은 전쟁 경험의 연속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속한다. 전쟁 이후 조부의 곁을 떠난 이순일은 먼 친척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식모살이를 한다. 그 무렵 자신을 포함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젊은 여성이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 언급되며, 순일의 친구인 ‘순자’와의 기억이 전개된다. 순일은 자신과 다르지 않은 친구 ‘순자’의 도움으로 도망해 파독 간호사로 떠날 준비를 하다가 친척에게 붙잡혀 돌아와 한중언과 결혼한다.<sup>30</sup>

29 전쟁통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친족을 잃는 경험은 『나목』의 오빠의 죽음과 유사하게 읽히며 이 사고가 이후 인물의 삶에 평생의 죄책감을 안겨준다는 점 역시 동일하게 작동한다.

30 이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 정리하건대 순일에게 전쟁 경험이란 일차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비)선택’의 연속이자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일로 작용한다. 순일에게 결혼이란 우선 당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별수 없는 선택이다. 이는 당장 오늘을 살게 하는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박완서를 마스터 플롯 삼는 요소와 맞닿는다. 이와 관련해 ‘전쟁 이후 청년 여성의 결혼이라는 선택과 한국 전쟁 시기 이후의 불안감’과 관련한 논문으로, 한국 전쟁 시기 미혼 여성의 결혼 양상을 분석한 안태운의 「딸들의 한국전쟁-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전쟁경험」(『여성과 역사』 제7권, 2007)을 참고하라. PX 전기공과 결혼한 『나목』의 이경의 사례나 『연년세세』의 이순일의 결혼이 시기적으로 한국 전쟁으로 딱 맞물리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여성의 결혼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감행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함에 위의 논문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안태운의 논문은 “한국전쟁 당시 19~25세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결혼과 섹슈얼리티에 전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성의 구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 중 전쟁 시기의 결혼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 때문에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한다. 이는 달리 말해 두 작가의 소설에서 구현되고 있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미래 없음’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은 집단의 구성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과 낙담을 추동하는데, 바로 그 미래의 도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안태운은 미혼 여성의 전시 결혼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첫 번째로는 피란 등의 상황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렸던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결혼을 선택했으리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부재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장녀의 선택이기도 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의 부양에 보조적인 노동력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녀의 입장”에서는 달리 결혼 이외에 다른 길(노동, 학업)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라 언급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구술 증언을 고려하면 이경이나 이순일의 결혼이 적어도 여성들이 전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책

이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순자’라는 익명의 여성의 삶을 ‘순일’로 발굴하는 장면에 이르러 구술사적 서사 형식이 적극 차용된다. 황정은은 「작가의 말」에서 “「무명無名」은 1946년생 순자씨의 피란 이야기를 듣고 썼다”고 밝히며, 이 인터뷰 과정에서 “순자씨는 매번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말 몇 마디를 내게 던졌고 그런 다음엔 자주 말문이 막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밝히며 그 말하기 방식을 그대로 서사화 하고자 했던 흔적을 남겨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sup>31</sup> 작가가 밝히듯 구술의 기록 형식은 「무명無名」에서 순일이 친구 순자를 회고하는 서술로 제출된다.

옆집에 순자가 있었어 친구가  
 영등포로 여고를 다니는 거야 어떻게 서로 알아가지고  
 친했어  
 조금 쉬느라고 개네 집 가서 쉬고 있으면  
 고모부가 쫓아와서 이 집 오면 밥을 주냐 뭘 주냐 왜 자꾸  
 여기 오냐 깽판 치니까  
 (...)  
 너 나가자  
 개하고 짠 거지 순자하고  
 너를 취직을 시켜줄게 강원도 집에 간다고 하고  
 몰래 나와라 도망가자  
 순자가 알려준 데가 병원이었어 간호조무 일을 배우는 조건이야 남대문  
 이야 위치가<sup>32</sup>

---

이자 자신을 구하기 위한 타협점으로서 선택되었으리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순일의 감각은 출산 후 괴로워하는 한영진의 모체화 되는 경험과 겹쳐진다. 전쟁을 관통하며 자기 훼손을 겪어본 적 있는 이순일의 삶은 자기를 별하듯 내일 없음을 겪고 있었던 출산 직후의 한영진의 감각과 접점을 지닌다.

31 황정은, 앞의 책, 184-185쪽.

32 위의 책, 121-122쪽.

「무명無名」에서 이순일이 과거를 회상할 때 위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구어체가 활용되며, 말이 문득 중단되고 본래의 문장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이 연작이 익명성에 가려진 이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안의 고유성을 발견하려는 서사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서술은 구술 채록과 등가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구체적 개인의 발언을 토대로 다시 이야기를 제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의 역사성을 소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술이라는 채록/기록의 형식이 당사자성의 목소리에 기대고 있음과 비교할 때, 소설에서의 구술 기록형 서술 방식은 당사자의 서술 자체를 인물의 그것으로서 독보적으로 활용해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소설에서 구술적 서사화는 ‘인물’에게 그 발언권을 부여준다는 점에서 구술 자체보다 훨씬 해석적이며 그만큼 본래 발화에 대한 개입의 여지 또한 크다. 즉 구술 그 자체가 아닌 ‘구술이라는 형태의 서사 전략’은 증언으로서 역사성을 획득하되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자리에 자신의 부분을 투영하게 함으로써 그 증언을 다시금 서사화하도록 만든다. 이를 두루 고려하여 황정은의 『연년세세』를 볼 때, 구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연출의 서술 방식은 이순일이라고 하는 소설적 주체가 단지 허구적 존재로 남지 않고 실제 삶을 경유했음을 밝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현실-구술적이다. 한편 실제 인물을 토대로 한 경험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억 작용 속에서 재구성되었으며, 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증언된다는 점에서 허구화로서 소설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소설은 실제 증언을 재-증언하고 있다.

한편 이순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이모인 윤부경(안나)과 조우한다.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이 서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지점인, 여러 차세대 인물을 경유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에 다시 쓰이는 재현의 방식을 보여준다. 윤부경은 미군과 결혼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우연히 이순일을 마주치며 서울에서 왕래하는 인물이다. 이때 윤부경의 서사는 사실상 이순일을 통해 매개되고, 한세진 및 윤부경의 아들 노먼, 노먼의 딸 제이미의 발화로 이어지며 전개된다.

언니.

양색시라는 말을 알아?

노먼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제이미는 말했다. 그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 안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살았어. 한국에서 양색시였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저런 여성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어디서 어떻게 만났겠느냐고. 나는 그들이 안나를 생각하는 방식엔 상당한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들은 안나가 자기들 신경을 긁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들을 괴롭힌 건 모국에 관한 자기들 생각이라고 생각해.<sup>33</sup>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제이미를 만나게 된 세진은 그녀로부터 윤부경(안나)의 삶이 한국 전쟁 시기 미군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에서 ‘양색시’라는 말로 일축되었으며, 노먼이 유년기에 자신의 어머니를 폄하하는 명칭에 대해 주지한 이후 끝내 어머니의 조국과 화해하지 못했음을 전해 듣는다. 이때 박완서의 소설에서도 언급되듯 ‘양갈보’라는 명명이 우선 철저히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 성 노동자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담보하는 멸칭으로서 확장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갈보/양색시는 PX에서 일했던 이경에게만 해당했던 이름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멸칭으로 자리했으며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황정은 서사는 되짚는다. 이는 박완서의 소설 중 『그 남자네 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쓰인 바 있다. 『그 남자네 집』의 말미에 ‘나’는 전쟁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으로 생활권을 옮긴 춘희로부터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는다. 춘희는 동생 중희 또한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딸 카멜리를 낳았다는 사실을 술에 취해 이야기 하는데, 카멜리가 “한국전쟁 중에 섹스 산업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준비한다”고 말한다. 춘희는 “걔 날 수치스러워 할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 삶이 후세대 여성에 의해 다시 쓰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34</sup> 박완서의 서사에서 이것을 당대 여성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황정은의 서사는 그 자녀와, 또 그 다음의 자녀까지 3대에 다다른 관계성 속에서 이것

33 위의 책, 175쪽.

34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284쪽.

을 포착한다. 여성 서사의 계보로서 박완서를 기틀로 잡는다면 황정은에 이르러 그들의 삶은 그 후대의 시선을 통해 다시 적시되고 그 자녀들의 삶으로 하여금 계속 다시 쓰기 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 4 나가며

본고는 한국 전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녀 관계를 다루는 박완서의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서사 줄기를 분석하고, 그러한 패턴이 2020년대 여성 서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주되고 연속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의 박완서의 여성 서사는 여성의 시선에서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조명한다는 점에서 젠더적 해석이 적극적으로 수행된 사례다. 이는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의미화되는 역사 쓰기의 구체적인 예시다. 그런 가운데 역사적 사건을 본격적으로 소환하여 역사적 사건에 젠더성을 기입하는 박완서의 여성 서사의 경우 증언적인 성격을 가진다. 『나목』,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남자네 집』이 대표적이다. 이는 젠더를 소거해온 역사에 젠더성을 기입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사 쓰기’와 관련된 쓰기의 작업인데, 이것이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쟁기 모녀 중심 서사의 마스터 플롯의 특징을 중심으로 『나목』을 재해석하였다.

박완서를 마스터 플롯 삼는 현대의 여성 서사 가운데 황정은의 『연년세세』는 여성 서사의 증언적 성격을 지니되 구술사적 서사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재-증언적이다. 이때 구술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서사화의 전략으로 다시금 분석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소설은 모녀 중심의 여성 당사자 이야기를 세대를 건너 오늘날 청년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금 발화하고 호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한 시대의 여성 개인을 통해 제출되는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의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이어 쓰기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찰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한국 전쟁기 모녀 서사라는 기본 플롯을 기틀로 둔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서사와 상호 영향 관계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모녀에서 일가 친척 인물로 특정 시기의 삶을 이어 진술한다는



점에서 역사성의 확장 또한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나 최은영의 『밝은 밤』은 후속 연구의 대상 텍스트로 주목할 만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2020년에 이르는 방대한 시간에서 가장 나중 시대의 여성인 지연의 삶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 소설은 ‘결혼’과 ‘근현대사’라는 테마 속에서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중심 여성 서사의 마스터 플롯과 접점을 지닌다. 이는 특히나 ‘결혼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따로 살펴야 함에 차후의 논의로 남긴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박완서 서사의 마스터 플롯화 및 현대 서사와의 상호 영향성에 대한 탐구는 구술사/생활사의 원리로서 문학을 읽고 담론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여성의 서사는 여성 ‘만’의 서사가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현실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성의 역사를 거둬 증언하는 형식으로서 서사 문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담론화를 진행함으로써 기왕의 사실을 새롭게 배열하는 차원의 ‘여성 서사의 계보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_\_\_\_\_, 『나무』, 세계사, 2012.

황정은, 『연년세세』, 창비, 2020.

이호연 외,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코난북스, 2021, 31쪽.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99-100쪽.

기시 마사히코, 정세경 역, 『망고와 수류탄』, 두번째테제, 2021, 23-43쪽.

린 헌트, 박홍경 역, 『무엇이 역사인가』, 프롬북스, 2019, 53-63쪽.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제 1권 제1호,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2018, 123-164쪽.

\_\_\_\_\_, 「한국전후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5권, 2005,

69-93쪽.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5권, 2002, 208-232쪽.

김진경, 「가족과 여성성, 그리고 모성: 박완서의 『나목』과 에이미 탠의 『조이릭 클럽』 비교 연구」, 『비교한국학』 제18권, 2010, 374-401쪽.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박경리의 「시장과 전장」과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3권, 2005, 311-336쪽.

안태윤, 「딸들의 한국전쟁-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 전쟁경험」, 『여성과 역사』 제7권, 2007, 49-85쪽.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제45권, 2018, 184-224쪽.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0권 제32호, 2011, 363-392쪽.

이민영, 「노인 여성의 기억과 생존의 전쟁 서사」, 『현대문학연구』 제0권 제61호, 2020, 79-114쪽.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제4권, 2000, 247-266쪽.

한경희,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박완서의 장편 소설 『나목』(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7권, 2017, 447-488쪽.

박수진, <『연년세세』 황정은 “소설은 정말 이상한 생물”>, 북뉴스, 2020. 12. 23. ([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15330](http://news.kyobobook.co.kr/people/writerView.ink?sntn_id=15330))

## Abstract

Exploring the Genealogical Aspects and Oral/Life History of Women's Narratives  
Centered o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during the Korean War  
:With a Focus on Park Wan-seo's *The Naked Tree* and Hwang Jeong-eun's *The Every  
Year*

Sunwoo Eunsil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genealogy of women's narratives centered o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during the Korean War. It examines the elements of the master plot of Korean War-era women's narratives centered o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with a focus on Park Wan-seo's *The Naked Tree* while also exploring its relationship with Hwang Jeong-eun's *The Every Year* as an extension of the master plot that grounds Park Wan-seo's narrative. In this way, this essay highlights the (re)testimonial nature of each narrative and examines the re-testimonial nature of the work of continuing women's narra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examining the continuity of modern and contemporary women's narratives and reflecting on the oral nature of women's narrative forms. On this basis,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genealogy of women's narratives. It also illustrates that reading and giving meaning to texts from an oral /life history perspective is a valid methodology for creating a genealogy of women's narratives.

Key words: women narrative, life history, oral history, mother-daughter relationship, genealogy of women narrative, Korean War, Park Wan-seo, Hwang Jung-eun

투고일: 2023. 03. 15.  
심사완료일: 2023. 04. 06.  
게재확정일: 2023. 04. 11.